

파키스탄의 내셔널센터 통합

- Pakistan Workers' Federation (PWF) 결성 대회-

9월 7일,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내셔널센터 3개 조직(APFTU, APFOL, PNFTU)이 통합하여, PWF가 결성되었다. 이 역사적인 결성대회에, JILAF로부터 도쿠모토(得本) 이사장, 이노우에(井上) 현지지원사업부 그룹리더가 참가했다.

대회에는 ICFTU본부에서 가이 라이더(Guy Ryder) 서기장, ICFTU-APRO로부터 스즈키(鈴木) 서기장·이즈미(和泉) 전 서기장(현 JILAF상담역), 하세가와(長谷川) ILO아시아 태평양지역 총국장,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내셔널센터 대표들이 내빈으로 출석하여, 이슬람교 교의에 준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되었다.

우선 각 내빈의 선두로서 도쿠모토 이사장이, JILAF의 조직과 파키스탄에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PWF가 노동자의 생활 개선과 사회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타국의 분열된 내셔널센터를 위한 통합 모델 케이스가 되기를 기대한다” 는 취지의 스피치를 했다.

그 후, PWF의 새로운 서기장인 쿨시드 아멧도르(Kurshid Ahmed)로부터 ILO의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노동자의 일치단결이 중요하며, 이번의 통합을 스타트라인으로 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가족을 소중히 하자”는 내용의 스피치를 했다. 마지막으로, 가이 라이더 서기장으로부터, 파키스탄의 오랜 세월을 걸친 통합 노력을 축하한 후, 자유롭고 민주적인 유니오니즘(unionism)을 유지하여, 조합원수의 확대와 능력 향상을 기대하며, ICFTU가 내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WCL과의 통합대회를 성공시키자는 내용의 결의가 표명된 후, 대회는 무사히 끝났다.

JILAF 활동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POSITIVE(노동안전위생)프로젝트는, 원래 1994년 파키스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상기 3개 조직과, 3개 조직의 협의회이며 PWF의 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ICFTU-PC에 대해, POSITIVE를 비롯하여, 조직강화, 클리닉 운영 등 각종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해왔으며, 파키스

탄은 JILAF와는 가장 교제가 깊은 나라중의 하나다. 또, 파키스탄에서의 내셔널 센터 통합은, 이즈미 상담역이 APRO의 서기장이었을 때부터 추진해온 일대사업이 결실을 맺은 성과로, JILAF로서도 상당히 감개가 깊다.

또, JILAF의 이번 파키스탄 출장에서, 도쿠모토 이사장은 국제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아지즈(Shaukat Aziz) 파키스탄 수상을 인사 방문하고, 또 이즈미 상담역과 함께 파키스탄 노동부 사무차관과 의견 교환을 했다. 또한, 주 파키스탄 일본대사관의 다나카 대사로부터 점심회에 초대를 받아, 현지의 직장 안전위생 강화의 필요성, 농지개혁의 필요성등, 여러 분야에 걸친 화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약 3일간의 짧은 체재였으나 각 관계 단체도 방문하는 등, 충실한 프로그램이었다.

▲결성대회 스피치 후, 기념품을 증정하는 도쿠모토 이사장(왼쪽). 오른쪽은 사홀 아완(Zahoor Awan) PWF부서기장.

▲결성 기념파티에서. 앞줄 왼쪽에서 2번째가 도쿠모토 이사장. 3번째가 아즈마(東) 주파키스탄 일본대사관공사, 4번째가 이즈미 상담역. 뒷줄 왼쪽에서 2번째가 하세가와 ILO아시아 태평양지역 총국장.

■파키스탄 지진 긴급원조■

JILAF는, 앞으로 PWF에 대해 현지의 필요성에 맞추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8일 파키스탄 북동부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당국 재무성 발표에 의하면, 11월 8일 현재, 사망자가 87,350명에 달하는 사상 보기 드문 대지진이 발생했다. 연합은 긴급지원으로서, “연합·사랑의 기부”로부터 1만 US달러를 APRO에 송부하였고, 또한 10월 22일~12월 10일까지의 일정으로 “특별 지원”을 구성 조직 등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번 대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애도하며 동시에, 하루라도 빨리 복귀될 것과, PWF의 활동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베트남에서 노사관계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 60명의 노조지도자가 참가■■■

국제노동재단은 베트남노동총동맹(VGCL)과 공동주최로 노사관계 세미나를 2005년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다낭시(Danang)에서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다낭시지역의 노동조합간부, 직장위원등 60명이 출석했다. 하야시(林)상무는 일본의 단체교섭, 노사협의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노동운동, 노동·사회법제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 새로운 협력 관계■■■

국제노동재단은 현재 베트남에 있어서 2개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하나는 POSITIVE(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참가형 안전위생 프로그램)로, 직장환경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코어트레이너를 육성하는 것이다. 2004년 11월에 호치민과 하노이에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앞으로 매년 1회 정도 POSITIVE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노사관계 세미나이다. 2002년에 제1회를 개최하고, 그후 매년 1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올해로 4회째 개최가 된다.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인식■■■

올해의 세미나 테마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로 하고 싶다는 요청이 VGCL로부터 있었다. 그 배경에는,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외자기업이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어, 외자기업에서 최근 노사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의 중요성을 VGCL간부 뿐만 아니라 정부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해에는 시간이 필요■■■

베트남에서는, 노사간에 노동 협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그 노동 협약의 내용은, 노동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거의 같다. 즉, 베트남 기업의 노사간에 체결되어 있는 노동협약은 노동법을 복사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노동 협약이 존재해도, 단체교섭이라는 개념이 없어,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트라이크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불만이, 동료에게 퍼지고, 그 결과 스트라이크가 된 것이다. 이번의 세미나의 내용은, 참가자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테마였다고 생각되었으나,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제10회 국제 활동가 양성 코스 시작

- 제 9회는 6명이 수료-

본코스의 목적은, 국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영어력을 몸에 익히며 동시에, 국제활동의 실무 및 국내·국제 노동운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장래, 노동 관계의 국제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된 교재로 실시되는 영어연수와 노동강의, 국제산업별조직(GUF) 방문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본코스의 수강자는 합계 11명 (항공연합, 서비스·유통연합,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UI젠센동맹, NTT노조 각 1명, 전기연합, 연합, JILAF 각 2명)으로 개강했습니다.

<제9회 수료생으로부터 한마디>

엄격하다는 소문대로, 코스 수료까지의 과정은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공부 방법과의 차이로 인한 당황, 하루종일 영어에 묻혀지내는 뇌의 용해등, 차례로 습격해 오는 장애물을 극복하느라 필사적이었습니다.

단지, 매우 도움이 되는 코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강사진에 의한 엄격하고도 따뜻한 지도, 때로는 맨투맨으로 각자의 서투른 부분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간접적인 표현 및 영어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문장 패턴등, 어른에게 걸맞는 영어력을 몸에 익힐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코스에 참가 하는 것만으로 영어를 몸에 익힐 수는 없습니다. 강사진의 지도, 직장의 이해와 더불어, 수강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항상 높은 목표를 내걸고, 수강자들끼리 서로 격려와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일입니다. 많은 동료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 제10회 코스 연수에서 영어를 수업중인 수강생들

회랑

아동노동에 힘을 쏟는 국내외 네트워크

이와쓰키 유카(岩附由香)

PROFILE

특정비영리활동법인 ACE(Action against Child Exploitation)대표

1974년생

1997년 ACE를 발족, 이후 캠페인 실시등 아동노동의 여론 환기를 위해 종사
국제어린이권리센터 사무국장 아동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

NGO-노조 국제협동포럼 기획위원

-----ACE의 홈 페이지

<http://acejapan.org>-----

(특정비영리활동법인)ACE는, 아동노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의 네트워크 구축및 운영에 깊이 관여해왔다.

2003년부터 ACE의 활동 덕분에, 2004년 9월에 NGO·노조·국제기관·기업·경제 단체·연구자·개인등을 연결하여 아동노동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노동 네트워크가 발족되었다. 2005년 6월 12일 세계아동노동금지일에는 쇼핑객으로 봄비는 오모테산도(表参道)를 150명이 도보행진하며 아동노동 문제를 어필했다. 앞으로는 기업에서 강사를 불러 아동노동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CSR)을 테마로 한 학습회를 1월에 기획하는 것 이외에, 내년의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위한 준비도 ILO와 협력하여 진행시키고 있다. 부디 노동조합에 계신 여러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아동노동네트워크와 동시기에 발족된 NGO-노동조합 국제협동포럼(※1)에서도 ACE는 아동노동그룹의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 7월 캄보디아에서 HIV/AIDS그룹과 공동주최로 실시한 스터디 투어에서는, 조합 간부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SHARE = 국제보건협력 시민의 모임, 국제 어린이 권리 센터등 일본의 NGO의 프로젝트를 사이트를 시찰했다.

2004년의 ICFTU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에서도, 아동노동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제 NGO 네트워크 조직, “아동노동에 반대하는 글로벌 마치(Global March)” (※2)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글로벌 마치는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조약 비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세계의 아동노동 문제의 여론형성을 위해 적극적이다. 2004년, 2005년에 아동노동 세계 어린이회의를 개최하고, 근로하는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계속해서 발신하고 있다. 각 리소스를 활용하여, 협력·연계를 통해 운동을 확대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은 앞으로의 아동노동 문제해결을 위해서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 NGO와 노조간의 상호이해와 협동사업 촉진을 통해,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에 내세운, 빈곤, 인권, 평화, 환경등의 각종 과제 해결을 위해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2004년 9월 1일에 설립된 포럼

※2 홈페이지 참조<http://globalmarch.org>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국제협력 No. 9

레나운 노동조합 “RUSO프로그램”

UI젠센동맹 레나운 노동조합서기장 쓰부라야 히로아키 (円谷博明) 씨

레나운 노동조합결성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작된 독자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RUSO 프로그램=Renown Union Support Oisca Program”. 이것은, (재)오이스카(아시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NGO)의 활동을 통해서, 필리핀·루손섬의 북부에 위치하는 아부라(Abra)주에 사는 사람들의 농업에 의한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1년 3월에는 오이스카에 자금협력을 하여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일본의 유치원에 해당)를 세워 아이들을 맡으므로 해서, 어른들이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같은 해 8월에는 5명으로 구성된 첫 현지시찰단을 파견. 이래 매년 5명 정도의 조합원을 현지에 보내어, 오이스카가 추진하는 어린이 숲계획(아이들에게 나무를 심게 하여 숲을 만드는 중요성을 알리는 운동)을 실제로 체험하여 주민들과의 교류를 꾀하고 있다. 화전및 삼림벌채로 인해 사라져버린 아부라주의 숲을 되찾기 위해서, 모금 활동및 벼룩시장에도 참가한다.

“일본사람들과 함께 흙투성이가 되어 나무를 심었던 어렸을 때의 경험이, 어른이 되어도 그 토지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계속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쓰부라야(円谷)씨는 이야기한다. 당초는 조금이라도 조합원에게 흥미를 갖게 하려고 시작한 이 활동에, 현재는 많은 조합원들이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현단계에서 사업확대는 곤란하지만, 매회 파견 인원수는 적어도, 반드시 현지에 가서, 현재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작은 활동이라도 계속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쓰부라야씨의 말처럼, “RUSO프로그램”은 민간차원의 활동을 계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2005년에 데이케어센터에 파견한 시찰단

PROFILE

국제교류 여성팀 필리핀을 방문

JILAF국제교류여성팀은, 지방연합회의 여성 노조리더로 구성되어, 아시아 각지의 여성노동자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팀이다. 팀의 파견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방문지인 필리핀은, 팀 파견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방문하는 나라이다. 연합의 야마구치 부사무국장을 단장으로 각지방 블록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12명으로 구성된 이번 파견단은, 10월 31일~11월 4일의 일정으로 마닐라 및 세부(Cebu)를 방문했다.

필리핀 노동조합회의(TUCP)의 전면적인 협력을 얻은 이번 방문에서는 TUCP, 노동성 여성청년노동자국 (BWYW), NGO시설, 제약회사등을 방문하고, 각조직의 개요 설명과 더불어 의견 교환을 했다. 조직화의 과제를 안고 있는 TUCP는, 특히 수출 가공구인 일본 기업에서 조합을 조직하지 못 하는 점에 초조함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이번 방문에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목적의 하나였다. 팀은 NUWHRAIN(호텔·레스토랑조합)을 방문하고, 필리핀의

아동노동 문제의 실상과,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NUWHRAIN은 2001년 연합의 자금협력을 얻어, 필리핀 관광산업에 있어서의 아동노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400만명이 종사하는 아동노동의 큰 요인은 빈곤이다. 현지에서는, 돈을 얻으려고 접근하는 아이들을 보고, 빈곤이라는 현실을 피부로 느꼈다.

현지를 방문하면, 현지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 아동노동은 일본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번 방문은 참가자에게 아동노동의 존재와 배경이 되는 빈곤문제를 알고, 앞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방문지 조정으로 신세를 진 TUCP. 여성위원회의 멤버와 교류를 했다.

JILAF달력 (2005년 9월~2005년 11월)

●초대

- 중동·아프리카 북부팀 (9월 1일~14일)
- 한국·홍콩·베트남팀 (10월 20일~11월 2일)
- 아프리카 프랑스·포르투갈어권팀 (11월 10일~11월 23일)

●현지지원

- 베트남 POSITIVE 폴로우 업 세미나 (9월 4일~19일) 호치민/하노이
- 파키스탄 ICFTU-PC 통합 대회·방글라데시 전국 세미나 (9월 5일~15일) 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다카
- 베트남 VGCL노사관계 세미나 (9월 17일~23일) 하노이
- 중국 ACFTU POSITIVE 세미나·JICA모니터링 (9월 18일~24일) 장쑤성
- 네팔 NTUC POSITIVE 코어트레이너 육성 세미나·학교 모니터링 (10월21일~11월 3일) 카트만두
- 인도 INTUC 학교프로젝트 (11월 2일~6일) 마카풀
- ICFTU-APRO 조정회의 (11월 7일~11일) 싱가포르
- 중국 ACFTU POSITIVE모니터링 (11월 14일~19일) 베이징시(北京市)/장쑤성

난통시(江蘇省南通市)

●기타

- 고용대책 조사 “NPO에 의한 고용 창출”해외 현지조사 (9월4일~16일) 미국
- 소셜 아시아 포럼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노동시장과 노동조합” (10월 13일~17일) 타이완·타이베이
- 고용대책조사 “NPO에 의한 고용 창출”해외 현지조사 (10월 27일~11월 8일) 덴마크/독일
- 국제교류여성팀 (10월 30일~11월 4일) 필리핀·마닐라
- KOILAF/JILAF정기교류 (11월 14일~18일) 한국·서울
- 제46회 이사회·평의원회의 개최 (2005년 11월 25일) 동경

인사이드아웃

JILAF에서 두번째 근무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근무했을 때, JILAF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예산이 적다고 통감했는데,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지금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출신 모체인 외무성과 그 친척인 JICA로부터 자금을 더 많이 짜내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나카무라 요시히로(中村義博)

/전우루과이 대사